『성경과 신학』 제 47호 (2008) : 61 ~ 86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신학을 향하여 –

On the Identity of Korean Evangelical Theology
-Tward the Reformed Evangelical Theology

김영한 (숭실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Ph. D.)
Yung Han Kim (Dea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머리말

다가온 21세기와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세계와 한국 신학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복음주의 신학이 정체성을 점검하는 일은 매우 시의타당하다. 그동안 복음주의 신학회는 이와 비슷한 주제로 학회를 가진 적이 있다.[1] 2010년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필자는 한국복음주의신학의 정체성 규정이란 주류적 흐름인 박형룡의 개혁신학적 유형을 계승하는 것이라 본다. 이에 웨슬리의 경건을 가미한 한철하의 복음주의 신학 유형, 그리고 이에 문화해석학적 반성을 첨가한 김영한의 복음주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복음주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늘날 미국복음주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소개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성경과 신학』, 제 30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집, 주제: 『서양신학을 향한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제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그리고 *Bible & Theology*, vol. XXXI,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cal Theology in the 21st Century* (Seoul: Word of Life Press, 2002); 『성경과 신학』 제 39권: 21세기 교회를 위한 복음주의 신학의 사명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06).

하면서 이에 대한 바른 대처가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좌파 복음주의 신학(evangelical theology left), 즉 탈보수주의 신학(postconservative theology)의 대두와 더불어 복음주의 신학의 정의가 무질서 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전통 속에서

1)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의 경건의 종합

(1) 박형룡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출발

한철하는 "칼빈의 신학과 이에 근거한 웨슬리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는 2000년 4월 그의 논문 "새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미래"에서 복음주의 신학의 중심이란 종교개혁적 이신칭의의 교리요 이것이 유일성의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2] 그는 박형룡을 "20세기 최대의 신학자"[3]로 칭송하면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든다.[4] 첫째, 박형룡의 신학은 바르트신학 같이 오류나 반틸신학 같이 결함이 없는 "진리로운 신학"이다. 둘째, 그의 신학은 변증학적 신학이다. 그의 신학는 바르트신학, 진화론, 과정신학, 상황윤리 등 한국교계에 퍼져들어 오는 신학사상에 대하여 기독교 진리를 수호한다. 셋째, 이신칭의의 진리를 고대, 중세, 종교개혁 및 현대에 이르는 교회신조에서 확인한다. 넷째, 이신득의의 신앙에 기초하여 신학을 세우고, 감동과 부흥의 근원으로 파악하며, 정통신앙보수의 열정과 성경신앙보수를 하고 있다. 한철하는 피력한다: "그는 딤후 2:2에서 '사도바울의 가르침', 즉 바울신학을 '기독교의 중심 진리'로 삼았고, 이 신학이 고대 교회-중세교회-개신교회-보수신학을 일관하는 '진리'로 보고 있습니다."[5]

---

2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21세기 인류의 살길』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50.

3 상게서, 55.

4 상게서, 56.

따라서 한철하는 박형룡 신학을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기초로 본다: "박형룡 박사가 해방직후에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김재준 교수를 주축으로 하여 밀려들어오는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서 정통신학을 보수하는 한편, 18세기 신앙 대각성 운동을 한국 땅에서 계속 꽃 피우고, 한국교회의 계속적 성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6]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한철하는 박형룡의 전집(全集)에서 다음 문장을 인용 한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구속을 준비하셨다는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이다. 이 신앙은 긍정하기를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한다."[7] 이에 근거하여 한철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진리는 "복잡한 신학"이 아니며, "죄인이면 누구나가 기뻐해야할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진리"라고 천명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진리"이다. 한철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이천년 서구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믿어 왔던 진리라고 해석 한다; "이것은 바로 바울-어거스틴-루터-칼빈-웨슬리를 일관하는 '오직 믿음' (*sola fide*)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최권능 목사님이 힘써 외쳤던 '예수 믿고 천당'의 단순한 신앙진리입니다."[8]

그러므로 한철하에 의하면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이란 "교회사를 일관하는 유일의 진리"인 이신득의의 진리를 오늘날 진리를 떠난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한철하는 다시 박형룡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피력 한다: "이 신앙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격, 성경의

---

5 상게서, 57.

6 상게서, 57.

7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XIII, 304.

8 한철하, 58

완전영감, 이적,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신적 수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신체적 영광스러운 재림, 모든 사람의 부활과 심판, 천당과 지옥 같은 교리들을 기독교의 기초적 진리들로 확집(確執)한다."[9] 복음주의란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확신하는 사도적 종교 개혁적 신앙 체계이다.

(2) 칼빈을 웨슬리와 연결

한철하는 칼빈의 신학은 웨슬리의 경건으로 이어진다고 피력 한다: "바울-어거스틴-루터-칼빈의 '구원' 중심의 기독교 종교는 웨슬리로 이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10] 한철하는 웨슬리의 중요성은 경건운동을 통해서 외적인 기독교적 삶의 체계를 내면화 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데 있다고 본다: "웨슬리는 이미 개혁이 다 완성 된지 200년이 지난 후에 외적 삶의 모든 체계가 기독교 체계로는 되어 있으나 영적 삶의 중심에 있어서는 그 근원적 능력이 사라져 버린 시대에 즉 경건의 모양은 있어나 경건의 능력을 되찾아야할 시대에 신앙각성운동을 일으킨 교사요 사도."[11]

그러므로 한철하는 박형룡 신학이야말로 칼빈 신학과 마찬가지로 웨슬리 신학이 한국교회의 신학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박형룡 박사의 사도적 신학이 오늘 바로 우리 신학이 되어야하는 것처럼, 칼빈의 신학이 그리고 웨슬리의 신학이 바로 우리의 신학이 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12]

한철하는 "칼빈신학 해석은 웨슬리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분명 해진다"[13]고 말한다. 그는 칼빈이 논구한 죄인의 구원의 문제는 웨슬리가 모라비안

9 박형룡박사저작 전집, XIII, 304.

10 한철하, 63.

11 한철하, 64.

12 한철하, 64.

13 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2000년 11월 14일), 132.

신도모임에서 체험한 "예수믿음에 의한 구원 확신"에서 분명해진다고 본다. 한철하는 칼빈이 기독교의 중심점을 잡는 일은 오랜 시일이 걸렸지마는 웨슬리의 경우는 모라비안 집회를 통한 새로운 경험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신생(新生) 경험 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Salvation by faith), 즉 "이신득의"의 교리가 분명하게 되었다고 해석 한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산 신앙(a living faith)으로 됩니다."[14] 한철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복음주의적 해석으로서 모라비안 신앙을 중요시 한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롬8;16)는 모라비안의 핵심진리로서 스판겐베르그(Spangenberg)가 웨슬리를 만난 첫 질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 합니까?"[15] 모라비안의 신앙은 바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대한 확신"(*Divinae erga nos benevolentiae cognitio*)이다. 이 확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마음에 뜨겁게 인쳐진다"(*per Spiritus sanctum cordibus obsignatur*).

한철하는 칼빈의 "죄인에 대한 이중용납(*duplex acceptio hominis*)의 교리나 행위의 의(*operum justitia*) 교리를 모라비안-웨슬리의 핵심진리로 본다. 성화의 교리는 "제이 은총의 교리"이다. 그러므로 한철하는 행함을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함을 무시하고 오로지 믿음만을 부르짖는 반율법주의(antinomianism)의 오류를 지적한다: "칼빈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자가 '행위 없는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을 무율법주의자(anomist)로 배격하였던 것입니다."[16] 그리고 "선행(善行)이 따른 신앙"이

---

14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65.

15 한철하, 65.

16 한철하, 69

칼빈과 웨슬리가 천명한 신앙의 핵심, 즉 복음주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천명한다. 한철하는 칼빈이 신앙 안에서의 '선행(善行)'의 은혜를 제이은총," 즉 "행위의 의"(operum justitia)[17]이라고 불렀다고 해석한다. 한철하는 "칭의의 교리와 성화의 교리는 "모라비안-웨슬리의 핵심진리"이며 동시에 칼빈에게도 핵심진리"라고 해석한다.[18] 그러므로 칼빈의 칭의교리와 웨슬리의 성화교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웨슬리의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새 신앙' 운동을 그의 평생에 전개하여 나갔다".[19]

이처럼 한철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이란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재규명하며, 오늘날 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면서 반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중병에 잠자고 있는 오늘날 21세기의 세계교회를 향하여 "칼빈-웨슬리의 참 가르침," 즉 의인과 성화의 교리를 선포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철하는 "21세기의 주요문제도 죄의 문제"[20]라는 놀라운 시대적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철하의 웨슬리 해석은 여태까지 웨슬리신학을 아르미니안주의요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간주한 장로교신학의 해석에 비하면 참신성을 지니고 있다. 웨슬리 자신은 칼빈의 칭의교리에 입각했으며, 여기에 근거하여 새로운 영적 체험을 통하여 성화로 나아갔다. 웨슬리는 새로운 통찰을 이 칭의의 교리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철하는 한국교회의 신앙로선에 있어서 "칼빈-웨슬리의 신앙노선을 견지하여 나가야 한다"[21]고 단언하고 있다.

2) 문화변혁과 해석학적 신학의 흐름

---

17 Calvin, *Institutes*, III, xvii, 10, 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148.

18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66.

19 한철하, 71.

20 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175.

(1) 문화의 사명은 성화교리의 확장

김영한은 한국복음주의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서 박형룡의 정통개혁신학과 한철하의 개혁주의적 웨슬리적 해석을 수용한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다가온 21세기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복음주의적 해석을 정체성에 보탠다. 1세대의 복음주의자로서 박형룡은 이미 1930년대와 1960년대에 한국교회에 밀려온 신정통주의 신학과 세속화신학, 등 각종 신신학과 대결하면서 학문적으로 칼빈과 핫지와 위필드,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에 이르는 정통개혁신학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후기의 박형룡은 신학의 정체성 확립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근본주의적 협착성에 빠지고 말았다.[22] 그리고 카이퍼를 중심으로 하는 신칼빈주의의 문화적 과제를 등한히 하였다. 복음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구원의 진리의 확립과 보존에만 열중하게 될 때 복음의 진리가 가진 다른 한편의 진리,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회적 봉사와 헌신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

한철하도 마찬가지로 이 문화적 분야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의식적으로 사회문화적 삶에 대한 반성을 그가 말하는 성화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한철하는 칼빈주의 전통 가운데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전통을 평가절하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을 '이신득의' 의 구원에 두지 않고 사회문화적 삶에 두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칼빈주의 전통은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문화 철학전통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 전통은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기독교의 중심을 '이신득의' 의 구원에 놓지 않고, 사회문화적 삶 그 자체에 놓음으로써 '중

---

21 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138, 189.

22 김의환, "박형용 신학",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6), 252; 김영한, " 죽산 박형룡과 한국개혁신학", 『한국개혁신학』, 제 21권 (2007년 4월), 31.

생과 구원' 은 일종의 수단의 위에 떨어지고 맙니다."[23]

이에 대하여 김영한은 다음같이 문화신학적 반성이 복음주의 신학에 들어가야 함을 제안한다. 문화신학적 반성이야 말로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적 전통을 바로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성화 교리는 내면적인 구원과 중생에 그치지 않고 제네바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새롭게 정비하는 문화적 삶으로 구현되었다. 웨슬리의 성화운동도 단지 내면적인 중생과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당시 도덕적으로 해이한 영국사회를 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적 위임(cultrual mandate)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교리의 사회문화적 적용이다.

김의환도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복음주의의 "성경 절대권위"에 기반한 문화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 음악, 문학, 신학 등 전체에 포스트모더즘적인 가치관이 지배되고 있다", "bioscience의 발달로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벗어나 인간의 manipulation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24]

한철하도 그의 강연 "한국교회의 진로"(2000년)에서 불신앙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문명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섬김과 나눔의 원리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기주의 철학의 기초 위에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서양문명의 삶의 체계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인류에게 '참 행복' 과 '참 보람' 과 '영광' 을 안겨주는 길은 오로기 신앙의 원리에로 대전환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부르심과 섬김의 원리에로 사랑의 나눔의 원리에로 대전환입니다. 불신앙과 자기중심의 원리에서 신앙과 사랑의 원리에로의 전환입니다. 나의 수입과 점유의 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단체나 국가단위로 혈안이 되어 가진 죄악을 범하는 일을 그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원리'

---

23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63.

24 김의환,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과제", 제 51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논문발표회자료집, 2008년 5월, 34.

에 따라 전 이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웨슬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a Christian World)의 구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25]

(2) 민중신학의 대안으로서의 문화신학

여태까지 한국복음주의 신학은 고유한 토착신학을 전개하지 못했다. 서구에서 전해온 개혁정통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을 수입하여 우리의 신학으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박형룡의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이다. 이러한 신학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교회와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는 공헌했다. 그러나 박형룡의 신학은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계에서 일어난 민중신학에 대하여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민중신학은 개인의 구원과 중생 보다는 사회의 구원을 중요시하는 신학적 방법에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복음주의 신학과 민중신학 사이에는 대화의 단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판은 했으나 신학적인 대화가 방법론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영한은 민중신학이 제기하는 민중의 개념을 중산층의 개념으로 끌어 올리면서 오늘날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너머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 향상을 고려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신학으로서 문화신학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문화는 민중의 문화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문화이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문화이다. 독일 튀빙엔의 신약학자 마르티 헹겔(Martin Hengel)은 예수를 갈릴리 중산층 기능직 출신으로 보고 그의 열두 제자들은 중산층 출신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26] 중산층 신학으로서의 문화신학은 민중신학과의 비판적 대화이며, 민중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제시이기도 하다.[27] 오늘날 민중신학

---

25 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177.

26 Martin Hengel, *Property and Riches in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1973), 27.

27 김영한, "민중신학의 위기와 한국신학의 새 방향", 『21세기 한국기독교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무니케이션, 2008), 399-434.

의 제 2세대의 신학자들도 민중신학의 방향모색을 주장한다. 임태수를 비롯한 제 2세대의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신학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신학, 1980년대 이래 형성된 민중교회의 현장 경험에 맞는 신학으로 갱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8] 문화는 인간 삶의 총체성의 차원이다. 단지 유행이나 영화나 예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3) 문화의 시대의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서의 문화적 사명

김영한은 그의 최근 4부로 된 문화신학 시리즈에서 그가 1996년에 펴낸 『한국기독교문화화신학』의 보다 구체적인 문화변혁신학의 프로그램으로 『21세기 문화신학 시리즈』를 전개하였다. 그 구체적인 것은 1권에서 21세기 세계관과 개혁신앙, 2권에서 21세기 문화변혁과 개혁신앙, 3권에서 21세기 사이버-생명문화와 개혁신앙, 4권에서 21세기 한국기독교문화와 개혁신앙을 구체적인 주제로 다루었다.[29]

여기서 김영한은 복음주의 신학이 단지 개인의 구원과 중생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다가온 문화의 시대 속에서 중생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 것인가를 반성하는 문화해석학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그의 변혁적 문화신학은 김경재의 혼합주의적 문화신학과는 다르다. 김경재는 저서 『해석학과 종교 신학』(1994)에서 한국개신교문화신학을 네 가지 모델(파종, 발효, 접목, 합류모델)로 분류하면서 그의 입장인 접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33] 김경재는 문화모델에 있어서 틸리히의 혼합주의적 "상관관계성"이론과 가다머의 지평융합이론에 기초한 접

---

28 임태수, 『민중신학입문』 (서울: 한울, 1995), 머리말.

29 김영한, 『21세기 문화신학』, 4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2008).

33 김경재, "한국개신교문화신학", 『해석학과 종교신학 -복음과 한국종교와의 만남』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187-223.

목모델을 바람직한 모델로서 제시하면서 기독교와 전통문화의 "상호 해석학적 순환과 개방"을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그의 접목모델은 복음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전통문화의 미신성과 섞어버리는 혼합주의에 빠지고 있다.[34]

김영한은 개혁주의적 문화신학을 제안 한다: 문화신학이란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한국적 고유한 문화 형식을 창출, 그것에 기독교적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문화적 반성을 한다. 그리고 문화신학은 포스트모던시대의 문화형식의 긍정적 측면(감성, 다양성, 개방, 문화, 삶, 생태 강조)을 수용하고, 부정적 측면(해체, 상대주의, 허무주의, 내재주의, 신비주의 등)을 비판하는 등 문화해석학적으로 반성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공헌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는 신학이다.[35] 이러한 문화신학이란 "개혁주의적 복음주의"(reformed evangelicalism)[36]라고 부를 수 있다.

김의환도 '74로잔 대회' 이후 복음주의가 근본주의와 구별되고 근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이고 문화적 과제에 관심을 기울려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엔 속죄 구원의 수직성과 함께 이웃 사랑의 평면성이 있다. 흔히들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문화, 제도적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다. 이런 비판은 20세기 초기에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이 점차 반문화적이며 반사회적인 경향으로 치우칠 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일반은총의 교리와 특별은총의 교리를 함께 믿기 때문에 근본주의와 차별되어야 한

---

34 김영한, "한국 기독교문화운동: 20세기 후반의 성찰과 21세기 전망", 『21세기 한국기독교문화와 개혁신앙』(2008년 4월), 368.

35 김영한, 『21c 한국기독교문화와 개혁신앙』, 398.

36 김영한, "21세기 복음주의 신학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성경과 신학』 제39권 (2006. 4), 44-46.

37 김의환,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과제", 제 51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2008년 5월, 36

다."[37]

II.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의 상황과의 비판적 대화

1) 미국 복음주의 좌파(탈보수주의신학)와의 비판적 대화

오늘날 북미 복음주의 내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탈보수주의 신학(postconservative theology)은 북미 한국유학생과 한인교회및 오늘날 한국복음주의 신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38] 탈보수주의신학이란 데이빗 베빙턴(David Bebbington)이 요약한 복음주의가 가지는 신념, 첫째, 개종주의 내지 신생에 대한 강조, 둘째, 성경주의, 셋째, 전도에 치중하는 행동주의, 넷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에 대한 강조(cruciecentrism)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보다 개방적인 신학조류이다.[39] 여기에 대표적 신학자라 할 수 있는 스텐리 그렌츠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2) 그렌츠의 체험신학

그렌츠(Stanley Grenz)는 1993년 그의 저서 『복음주의 신학의 수정』(*Revisioning Evangelical Theology*)에서 복음주의 신학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그렌츠는 포스트모더니티, 즉, 후기 현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는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특별한 영성과 체험에 관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교리는 체험에서 나오나 교리는 체험을 형성한다. 그렌츠는 체험과 교리의 상호관계성을 말한다. "복음주의의 덕성

---

38 한상화, "미국복음주의 신학의 최근의 동향과 진보적 복음주의", 『성경과 신학』 28권 (2000): 85-121.

39 Roger E. Olson, "Postconservative evangelicals Greet the Postmodern Age," *The Christian Century*, vol. 112 (May 3, 1995), 480-83

40 Stanley J. Grenz, *Revisioning Evangelical Theology: A Fres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Downers Grover, Ill.: InterVarsity, 1993), 35.

은 어떤 세대나 어떤 표현에서나 신학에 자리 잡은 체험적 경건이다."[40]

그렌츠는 19세기의 복음주의 영성, 곧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중요시 한다. 그는 수정된 복음주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전통적 복음주의를 수정하고자 한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보크뮐(Klaus Bockmuehl)이 시도한 바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리를 체계화 하는 것이 고전적 형식의 복음주의였다. 그렌츠는 피력한다: "이것은 성서의 권위를 바르게 붙잡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수정된 복음주의 신학을 위한 촉매로서 기능할 수 없다."[41] 이러한 고전적 접근은 자유주의자와 신정통주의자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다.

그렌츠는 서사적 접근(a narrative approach)을 제시한다. 여기서 서사(徐事)란 역사 안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신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within the faith community)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2] "수정된 복음주의 신학은 실재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앙하는 공동체의 신앙 헌신에 대한 반성을 추구한다."[43] 여기서 그렌츠는 교리의 본질에 대한 미국 예일의 역사신학자 린드벡(George Lindbeck)의 후기자유주의 이해에 명료히 동의하고 있다.[44] 그렌츠는 린드벡의 기능주의적 교리관에 동의하면서 신학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기 보다는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성찰이라고 본다.[45]

『토대주의를 넘어서: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신학』(*Beyond Foundationalism: Shaping Theology in a Postmodern Context*)에서 그는 피력한다: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삶, 그리고 실천 등

---

41 *Revisioning Evangelical Theology*, 62.

42 Ibid., 72.

43 Ibid., 85.

44 Roger E. Olson, "Whales and Elephants: Both God's Creatures But Can They Meet?," *Pro Ecclesia* 4.2 (Spring 1995), 180

45 Stanley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 1994).

에 대한 비판적이고도 건설적인 반성작업(critical, constructive reflection)으로 지속적이며, 이차적이며 상황적인 학문(ongoing, second-order, contextual science)이다."[46]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반성이기 보다는 신앙공동체의 이야기들, 상징들, 실천 등에 대한 해석적 작업이다.

그렌츠가 내리는 신학의 정의는 린드백이 제시하는 교리와 신학 이해와 같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학의 주요 자료는 성경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삶이다. 둘째, 신학의 진술은 이차적 진술로서 일차적인 진술인 성경의 서사와 구분된다. 셋째, 지식과 해석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다. 그래서 근대주의의 보편적 이성과 공통의 종교적 경험은 비판된다. 그리하여 복음주의 신학이란 새로운 포스트모던 상황 속에서 성경이라는 보편적 토대가 아닌 다양한 자료(various sources)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적 신학(conversational theology)이라고 본다.

3) 그렌츠와의 비판적 대화

탈보수주의(postconservativism)가 보수신학이 진리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과 승리주의(triumphalsim)에 반발하여 온건하고 겸허한 자세를 추구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태도이다.[47] 신학이란 학문의 사회적이고 역사적 조건성과 해석학적 성격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신학을 절대화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탈보수주의의 입장은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탈보수주의는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새로운 신학의 장을 맞이하여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한다. 그리하여 탈보수주의

---

46 Stanley Grenz & John R. Franke, *Beyond Foundationalism: Shaping Theology in a Postmodern Contex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6.

47 Olson, "Postconservative Evangelicals Greet the Postmodern Age," 480-83.

는 정통개혁신학의 근거하고 있는 상식실재론(common sense realism)을 거부하고 있다. 그렌츠는 그가 시도하는 서사적 시도는 신앙공동체의 헌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사적 접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하는 인간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이 접근은 계시의 초역사성,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과 성례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초인간 신앙공동체적 성격을 등한시 한다. 그리하여 서사적 접근은 신학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에 대한 기술(記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적 서사로 다룬다. 그럼으로써 그렌츠는 신학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말하는가 아니면 신앙공동체의 해석학적 틀에 의하여 제약되는가 하는 질문은 회피하여 버린다. 이러한 그의 접근은 신학의 객관성과 초월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렌츠는 전통적 복음주의가 단지 성서에서만 신학 자료를 찾는 것과는 달리 신학 자료를 세가지로 제안한다. 그것들은 성경, 전통과 현대문화이다. 그러나 그는 자료와 규범을 일치시킨다. 여기서 그렌츠는 신학의 자료와 신학의 규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치 내지 혼동한다. 그럼으로써 성경 유일의 복음주의 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 자신도 신학이 문화에 너무나 적응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48] 그러나 그는 신학이 항상 특수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것의 역할을 다한다고 본다. 그의 신학적 반성은 지식 사회학적 접근으로 나아간다. 기독교 신학은 신앙공동체의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구성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고 본다. 그리하여 신학에 대한 공동체적인 접근은 보편적 진리주장 보다는 다양한 진리의 패러다임을 설명해준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그는 신학과 교리의 역사적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다.[49] 이러한 그의 신학 개념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상대주의에 너무 적응함으로써 복음 진리의 보편성과 복음주의의

---

48 Olson, 107-108.

49 Stanley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6).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 신학자 게리쉬(Brian Gerrish)의 다음과 같은 그렌츠 신학에 대한 평가는 주목할만하다: "그렌츠는 21세기를 위한 자신의 신학적 프로그램이 소위 자유주의적 원조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쉴라이에르마허가 19세기에 제안했던 프로그램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쩌면 그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다. 물론 양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체험, 공동체 및 상황에 대한 삼중의 강조점은 복음주의적 교의학에 대한 쉴라이에르마허의 공헌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확신했던 것은 자신의 체험이 사도시대 이래 계속되어 왔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상대화되는 언어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어떤 것을 지적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50]

체험이 교리를 정의하거나 주변화 하도록 내어 버려두는 신학은 1923년 그레샴 메이첸이 고전적 저서인 『기독교와 자유주의』(*Christianity and Liberalism*)에서 제시한바 같이 자유주의 신학이다.[51] 그랜츠는 비록 한편으로는 복음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포스트모던 상황에 처한 신자들의 공동체 내부로부터 기독교적 체험을 묵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개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교리적 객관성에서 벗어나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하는 종교적 체험의 주관성으로 몰아가고 있다.[52]

2) 미국의 교회성장주의와의 비판적 대화

---

50 Brian Gerrish Paul Kjoss Helseth, "Are Postconservative Evangelicals Fundamentalists? Postconservative Evangelicalism, Old Princeton and the Rise of Neo-Fundamentalism," in *Reclaiming the Center*, 240, note 101에서 재인용.

51 W. Robert Godfrey, "The Task of Evangelical Theolo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Task of Evangelical Theology for the Church in the 21st Century*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and World Evangelical Alliance Theological Commision, 2005), 334.

52 도날드 칼슨은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본다면 나는 유용한 의미에서 그렌츠의 성경에 관한 견해가 복음주의적 이라 불러질 수 있는가 나는 볼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비평한다 (D. A. Carson, *The Gagging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81).

1) 교회성장에 경영기법도입

미국의 교회성장주의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중반까지 풀러신학교의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이 주도한 교회성장학 파운동은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에 뿌리를 두었다. 그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수단으로 하여 "피플-운동"(People Movements)을 개발하였다. 이 이론은 집단 속에서 사람들, 즉 개 개인은 상호의존함으로써 연계적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고 본다.[53] 그리고 그의 이론은 와그너(Peter Wagner)에 의하여 동질성 단위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이론으로 교회성장이론에 도입된다. 이 이론은 상징, 관습,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상호이해가 가능해지므로 가족 같은 편안한 느낌을 갖게되며 서로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이론이다. 교회성장학은 1980년 후반에 이르러 찰스 풀러 전도와 교회성장연구소(Charles E. Fuller Institute of Evangelism and Church Growth)의 책임자 칼 조오지(Carl George)에 의하여 경영학을 도입하여 시장주도형 교회(market driven church)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로버트 로간(Robert Rogan)과 함께 1987년에 펴낸 저서『당신교회의 인도와 경영』(*Leading and Managing Your Church*)에서 교회성장을 위하여 경영의 원리를 실용화 내지 극대화하고자 한다. 조오지는 1993년 저서『성장의 장벽을 깨뜨리는 방법』(*How to break Growth Barriers*)에서 교회성장의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은 첫째, 거룩한 상상(holy imagination) 둘째, 확실한 수준의 기술(having a certain level of technique)이다.

2) 비판적 대화

---

53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0), 228.

54 Carl George and Robert Rogan, *Leading and Managing Your Church* (Grand Rapids: Fleming Revell, 1987), 14.

(1) 이러한 경영원리의 도입은 목회의 역할을 경영자의 역할[54]로 보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구원의 개념이 인간적인 결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하나님 주권적인 구원개념이 인본주의화 되는 위험성에 직면한다.[55]

매가브란이 말하는 우선적인 것은 숫자적 성장이다. 이것은 곧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룩한 실용주의(consecrate pragmatism)이다. 교회성장 원리로서 사회학적으로 의사소통의 극대화와 효율화를 이루는 동질성단위 원리[56]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가 도입하는 경영원리의 실용화 내지 극대화는 교회성장을 시장주도형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덴버신학교 브루스 셸리(Bruce Shelly)는 교회성장으로 인하여 "세례교인"(church membership)의 의미, 예배의 스타일, 설교의 방식이 바뀌어 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영기법은 회심이나 결단에 인간주의적 요소를 도입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반틸(C. Van Til)과 스프룰(R. C. Sproul) 등은 좌파 복음주의가 인간의 회개와 결단을 강조하는 나머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무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프룰은 1996년의 저서 『믿을려 함』(*Willing to Believe*)에서 오늘날 경영기법의 복음주의의 구원론을 세미-펠라기안주의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 의하면 중생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자 안에서 일어난다. 믿음을 중생의 열매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에 협력하는 의지의 형태로 본다."[57]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반틸계 개혁주의자들은 인간 자유의지의 무능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결심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을 무위

---

55 김홍만,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동향과 평가 - 구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제 51차 한국복음주의 논문발표회 자료집, 2008년 5월 9일-10일, 53-69.

56 Bruce Fong, *Racial Equality in the Church*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6), 10.

57 R. C. Sproul, *Willing to Believe* (Grand Rapids: Baker, 1997), 24.

화 시킴으로써 과격-칼빈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혁신학의 바른 이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의 무능을 말하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 처럼 100% 인간의 결단을 말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사후에 출판된 에드워즈의 소논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관해 언급한다. 그는 다음같이 쓰고 있다" 유효한 은총에 있어서 우리는 순전히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일부하시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하시고 우리가 전부를 한다. 하나님은 전부를 만들어 내시고 우리는 전부를 행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 즉 우리의 자신의 행위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저자이며 근원이시다; 우리는 적절한 배우들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전적으로 능동적이다."[58] 존 헤셀링(John Hesselink)이 해석하는 바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을 균형있게 말해야 한다.[59] 필자는 복음주의 설교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사도행전의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 끝에 베드로의 회개 촉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빌리 그래함이 결심(decision)을 위하여 제단으로 불러내는 프로그램(altar calling program)을 비판하는 것은 과격 칼빈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면서도 맥가브란의 피플-운동(people movement)이 그룹회심을 말하면서 결심을 곧 바로 중생으로 간주하는 결심중생(decision regeneration)개념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모든 결심자가 중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중생은 인간의 인위적 프로그램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의 바른 구원관이란 중생은 신앙에 선행한다(Regeneration precedes

---

58 *Works of President Edwards*, vol. 2 of the Worcester edition, 580.

59 I. John Hesselink,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ed Tradition," Lecture-Manuscript at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at Soongsil University, May 2007, 13.

faith)는 것이다. 신인협동설(synergism)이 아니라 신적독력설(monergism)이 바른 구원관이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결심중생관에는 인본주의적 요소가 있다. 이들은 찰스 피니(Charles Finney)가 주장하는 바 결심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교회성장학파는 인간의 결단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봄으로써 성령의 주권적 사역을 등한시하고 있다.[60]

(2) 교회성장학파는 교회성장 기법으로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교회를 기업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교회론을 무너뜨리고 있다. 교회가 공적 기업화가 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웰즈(David Wells)는 다음같이 피력한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 올 때 그를 소비자를 보는 것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필요 욕구에 따라서 상품을 고르는 생각들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상품은 교회의 활동들과 경험들, 문화적 설비들,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이다."[61]

이러한 영향이 한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도하고 온누리교회 등 초대형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성전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지성전 예배는 스타목사의 설교를 생중계함으로써 교인들을 배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 지성전의 목사는 설교할 수 없고 하나의 관리자가 됨으로써 성경적 목회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교회는 종교백화점이 아니다. 교회는 사회학적, 경영학적 개념에 환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에클레시아이다. 다가오는 문화의 시대에 교회는 사회과학이나 문화및 경영기법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은 어디까지나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구원과 교회의 교리가 훼손되지 않고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

60 Andrew D. Chang, "The Nature of Saving Faith: Another Look at Lordship Salvation," *Korea Journal of Theology* 4 (2004), 153-91.

61 David Wells, *The Bleeding of the Evangelical Church*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5), 3.

Ⅲ.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의 기준

정체성의 기준이란 성경, 구원, 성결, 문화적 섬김이다.

1) 성경 –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 중요시

성경은 여전히 신앙과 신학의 절대적 기준이다. 그리고 유기적 축자적 영감은 성경의 권위에 본질적이다. 무오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복음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해석의 보다 풍성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요청된다.

김의환은 성경을 외면할 때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것을 다음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 복음주의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와 성경진리들의 절대불변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화란의 루니아(Runia)교수가 미국의 *The Banner* 지에 기고한 글에서 그토록 복음주의적이었던 화란개혁교회가 그토록 빨리 지난 20년 짧은 기간 동안에 자유주의적인 교회로 전락하여 버린 모습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하였다. 얼마전 한국 관광객을 안내한 크리스천 화란 여행가이드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세운 유럽에서 최근까지 가장 기독교적인, 자유대학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비기독교대학이 되어 버렸다고 개탄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영국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에딘버러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장로교회가 술집으로 팔린 소식은 우리에게도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을 외며 한 교회는 하나님도 외면하신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62] 그렌츠 등 신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이외 다른 자료들을 신학의 기준으로 갖다 놓는다. 이것은 종교개혁적 '오로지 성서' 라는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

62 김의환,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과제", 제 51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2008년 5월, 34-35.

2) 칭의, 구원으로서의 은혜 – 하나님의 주권이나 개인의 결단은 상호모순되지 않음 생태학적 차원으로 외연의 확대

복음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적 은혜(*sola gratia*)를 중요시한다.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체험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오로지 은혜'에는 칭의, 구원이 같이 들어간다. 구원과 중생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균형잡힌 복음주의는 반틸(Cornelius Van Til) 같은 과격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치우쳐서 인간 자유적 결단을 무위화 하는 것[63]에 대하여 인간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균형잡힌 복음주의는 클라크 피녹(Clark Pinnock) 같은 복음주의 좌파가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적 결단에 좌우되는 것 같이 주장하는 것[64]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전혀 도외시 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인간의 책임과 결단은 역설적으로 조화된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구원으로 나아간다. 21세기 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구원의 개념을 인간이 사는 자연환경에까지 그 외연을 확대시킨다. 여기에 생태학적 반성이 도입된다.

3) 성결 – 도덕성의 새로운 강화, 개인적 성결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 민중 등 소외자에 대한 관심확대

그러므로 구원은 성결의 삶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다. 성결의 삶 없는 구원의 삶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은 중생하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

---

63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 신국원 역, 『변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104-105. 반틸은 신앙의 변증에 있어서 불신자와 공동의 근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서울: 살림, 2007], 117).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아무런 공동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브루너가 "접촉점" (contact point)이라고 인정하는 훼파된 하나님의 형상성의 흔적마저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25).

64 Cary Dorrien, *The Remaking of Evangelical Theology* (Lou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75.

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의 책임에 서 있다. 이것은 바로 성화의 삶이다. 칼빈은 이것을 성화(sanctification)라 불렀고, 웨슬리는 성결(holiness)이라고 불렀다. 성결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고아, 과부, 가난한자, 병약자, 노인, 나그네,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권익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주요 복음주의 대형교회들의 세습,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호화판 지출 등에 관한 공영매체의 비판에 관하여 저들의 안티기독교 공격이라고 응수하기 전에 먼저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에 관하여 스스로 자성해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4) 문화적 섬김 – 성경이 기반한 문화해석, 문화변혁의 신학 인터넷 기술, 유전학 기술에 대한 바른 해석학

1974년 로잔대회에서 세계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의 방향을 여태까지 개인구원 일변도에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짝으로 전환하였다. 개인구원이란 정의로운 사회 구현없이 진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란 구원받은 개개인이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회의 제도 속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도의 기계기술 사회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화적 위임(cultural mandate)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사명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피력했으며, 신칼빈주의자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연』에서 전개한 문화신학적 착상의 현대적 적용이다.

이미 다가온 새로운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유전학 기술을 통하여 오늘날 인류는 제 2의 과학기술의 시대에 진입해 있다. 복음주의 신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시대, 인터넷과 생명과학에 의하여 정보의 홍수와 생명이 연장되고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시대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복음적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조명을 해주어야 하는 해석학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는 윤리가 중요한 반성의 주제이다. 고도의 소비와 과학기

술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하며 과학기술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문화해석학[65]이 요청된다.

IV. 맺음말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확립이란 박형룡의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칼빈 유형의 복음주의이다. 여기에는 "오로지-성경" 원리와 "이신득의라는 칭의"의 원리가 들어있다. 박형룡이 성경과 정통교리를 강조함으로써 한국교회에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체계를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은 교리적 경직성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웨슬리적 구원과 경건이다. 한철하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한국복음의 정체성에 칼빈의 교리와 웨슬리의 경건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한철하의 독특한 복음주의 신학의 유형이다. 김영한은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어받으면서 문화적 위임의 차원으로 확대한다. 그리하여 복음주의의 구원 개념은 개인구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구원과 자연환경의 돌봄과 보존까지 확대된다. 한국 복음주의신학의 정체성 구정에는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와 복음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좌파복음주의신학 특히 탈보수주의주의 신학과 교회성장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탈보수주의 신학은 신학과 교리의 역사적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탈보수주의 신학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트랜드에 너무 적응함으로써 복음 진리의 보편성과 복음주의의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교회성장주의신학은 교회성장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므로써 정통적인 구원론과 교회론에 세미-펠리기안주의(semi-peligianism)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균형잡힌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은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해야 한다.

---

65 김영한, 『21세기 한국기독교문화와 개혁신앙』, 8.

Abstract

On the Identity of Korean Evangelical Theology
-Tward the Reformed Evangelical Theology-

Yung Han Kim(Dea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The Setting up of identity of Korea evangelical theology begins with transmitting the reformed orthodoxy of Hyong Ryong Park. This is an evangelicalism of Calvin-type. Here lie the principle of sola scriptura and justification principle, namely earning righteousness by faith. He layed the system of reformed evagelical theology, by emphasizing the scripture and orthodox doctrine. This type of evangelical theology can fall into a doctrinal strictness. What complements it is Wesleyan salvation and piety. He grafts the doctrine of Calvin and piety of Wesley for building the identity of Korean evangelical theology. Yung Han Kim succeeded it, extends it to the dimension of cultural mandate. So, the concept of evangelical salvation does not remain in the individual dimension, but extends to the social salvation and the care and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 critical reflection of American evangelical left theology, represented by potconservative theology and church growth theology is demanded. The former emphasizes historical relativity of church and doctrine, weakening the universality of evangelical truth and historical identity of evangelicalism, by too much adjusting to the trends of postmodern culture. The theology of church growth has shown a semi-pelagianistic tendecy in terms of

the doctrine of church and salvation, by introducing the technics of management in the church growth. Korea evangelical theology should critically reflect on it.

Key-Words: Chul Ha Han, Hyong Ryong Park, Yung Han Kim, Stanley Grenz, Reformed evangelicalism, postconservativism, church growth theology